

# 투자로 미래를 바꿉니다

대한민국은 투자를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열심히 일한 분들께

저금리에도 노후의 평안함을 드릴 수 있습니다.

투자 없이는 성장도 없기에

대한민국은 투자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을 위해, 또 미래세대를 위해

미래에셋대우가 활기찬 투자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투자를 통해 고객과 사회에 기여하겠습니다.

빛을 주는  
시각장애인의 재활복지를 선도하는 국내 최대의 시각장애인 복지관입니다.  
이웃을 내 몸 같이.

효명 장학금





## 반대쪽에서

박노해

눈부신 꽃들은 겨울 뒤에 피어난다  
순수한 기쁨은 슬픔 뒤에 걸어온다

모든 좋은 것은 고통 뒤에 찾아온다  
한쪽을 버리면 다른 쪽도 사라진다

내가 찾는 간절한 것들은 다 반대편  
지금 내가 욕망하는 반대쪽에서 걸어온다

제호 격월호 「빛을 주는 실로암」

발행일 2017년 3월 15일 통권 130호 이사장 김선태 발행인 김미경 편집인 함요한, 김은애  
편집위원단 이인애 김경애 진태욱 김다혜 오지수 이선례 이선아

발행처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주소 08757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17 (은천동 931-7)

TEL 02.880.0500 FAX 02.887.1120 E-mail silwel@chol.com Homepage http://www.silwel.or.kr

트위터 https://twitter.com/silwel2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ilwel2 해피로그 http://happylog.naver.com/silwel.do

Telnet bbs.silwel.or.kr Web BBS http://web.silwel.or.kr ARS 02.880.0900 문의 홍보팀 02.880.0867

디자인 인쇄 우리미술 02.2275.6960

## Contents



04 포커스1  
하얀 눈 위, 불가능을 뛰어넘다 - 2017 시각장애인 스키캠프



06 포커스2  
효명曉明 어둠에 빛을 비추다 - 2017 효명장학금 수여



08 새소식  
엄마와 아이가 행복합니다 - 시각장애부모 가정 지원프로그램

10 희망나눔  
나는야 행복한 뮤지션 - 신재혁 이용자

12 사랑나눔  
달란트를 나누는 일 - 대구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김태호 교수

14 해피스토리  
2017년 1월~2월 사업 현장

18 미리보기  
2017년 4월~5월 행사 및 광고

19 나눔플러스  
2017년 1월~2월 후원 안내

# 하얀 눈 위, 불가능을 뛰어넘다

## 2017 시각장애인 스키캠프



앞이 흰히 보이고 사지가 멀쩡해도 하얀 눈을 두 발로 내딛고 스키를 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는 이가 스키를 당당히 타는 일은 갈채 받아 마땅한 일이다. 2017년 16명의 시각장애인은 불가능의 영역을 또다시 넘어섰다.

지난 2월 13일(월)부터 18일(토)까지 '2017년 시각장애인 스키캠프'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스키캠프는 시각장애인이 스키를 탈 수 없다는 편견을 깨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되어왔습니다.

2017년 스키캠프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강원도 장애인체육회의 주최 및 주관으로 진행되어, 시각장애인 말고도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여러 종류의 장애인이 함께 참여하였는데요. 각 장애 유형에 따라 전문강사의 일대일 강습이 진행되었습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시각장애인 16명이 캠프에 참여하였고 오랜 기간 스키캠프에 함께 해주신 한국대학스키연맹 지도자 8명이 함께 참여하여 장애인분들의 강습을 도맡았습니다.



### 김영범 참가자 (시각장애 1급)

: 이전에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5박 6일 캠프인 걸 보고, 뭔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 같아 직장인이지만 연차를 냈고 다녀왔습니다. 우선 연차가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연 안전할까, 불편하진 않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전혀 불편하지 않았는데,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이 시각장애인 전문 복지관이니만큼 장애 특성에 맞춰 적절하게 강습을 진행해주셨습니다. 기대했던 교육적인 부분은 기대 이상으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전문 강사님의 일대일 맞춤형 강습으로 실력이 훨씬 향상되었고 가장 큰 보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RP(망막색소변성증)로 보일 때와 안 보일 때가 천지차이여서, 처음엔 강사님과 호흡을 맞추기가 어렵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강사님이 저의 시각특성을 이해해가셨고 막바지에는 굉장히 빨리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기에,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컸었는데, 스키캠프를 통해 자신감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수영교실을 신청해서 수영을 배우려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수상스키를 하는 게 목표 중 하나입니다. 스키캠프를 통해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는 것,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 김가현 참가자 (시각장애 2급)

: 오랫동안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정보를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직장을 퇴사하게 되면서 여유가 생기고 스키캠프 일정이 잘 맞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스키는 한번쯤 타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장애가 있기도 하고 원래 겁이 많아서 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이번에는 일대일로 강습을 해준다고 하기도 하고,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해볼까 싶어서 큰 맘 먹고 신청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무섭고 두려웠죠. 그런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강사님이 너무 잘 가르쳐주시기도 했고 격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안전을 생각해서 초급반수준으로만 탔지만, 정말 완벽하게 타고 왔어요. 무엇보다 전혀 안 보이는 분들이 타는 걸 보고 도전을 받았어요. 지금은 스키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서 헤어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스키 동호회를 만들 예정이구요(웃음). 제 나이가 올해로 마흔이예요. 40년 만에 스키를 타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원 없이 타야겠어요.

자원봉사자로 함께한 윤창환님은 "시각장애인에게 스키 기술을 가르쳐주어 뿌듯했고, 시각장애인은 스키를 탈 수 없다는 편견을 깨는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이런 봉사활동이 있다면, 참여하고 싶다"고 바람을 전하시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한 번의 경험으로, 한 번의 만남으로 인생이 변하기도 합니다. 2017년 스키캠프를 통해 많은 분들이 새로운 도전의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삶엔 반드시 조력자가 있다.  
 누군가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섬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시각장애인 대학생들의 삶을 세워주기 위한 섬김은  
 2017년에도 계속된다.  
 2017년 효명장학금 수여식 현장을 찾아가 본다.

# 曉明 효명 어둠에 빛을 비추다

시각장애인 대학생 대상,  
2017 효명장학금 수여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지난 2월 23일 (목), '2017년 상반기 효명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여, 성적이 우수하고 인성이 반듯한 시각장애 대학생 19명에게 총 5,25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효명장학사업은 시각장애 대학생들이 장애로 인해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여 훗날 시각장애인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날 수여식에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이사장이신 김선태 목사(김정자 사모), 실로암의료선교복지연합회 총재이신 김건철 장로, (주)AMO그룹 김병규 회장, 한국장로신문사 사장 유희귀 장로, (사)광주광역시시각장애인연합회 김갑주 회장, 효주 시드시 우리교회 배진태 목사 등 여러 내빈이 참석하셨습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이사장 김선태 목사는 “무엇을 하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된다. 위대한 성공을 이루어 위대한 사람이 되라”라는 메시지를 통해 시각장애장학생들을 격려해주셨습니다. 김갑주 회장은 시각장애인 선배로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 어려웠던 지난날을 회상하며,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후배들에게 전해주고자 개척자의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왔음을 밝히셨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효명장학생으로 학업에 정진했던 김건(서울대학교 교직원)은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큰 쓰임을 받으라는 의미이다. 시각장애계의 리더가 바로 한국과 이 세계의 리더이다”라고 말하며 후배들을 독려해주셨습니다.

2017년 상반기 효명장학생 중 조원석 학생은 시청각장애인으로 살아가며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었지만, 잘 극복하여 현재는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생으로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조원석 학생은 자신과 같은 시청각장애 및 사회적 약자를 돕는 언론인이자 인권전문가가 되기 위해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효명장학금을 통해 금전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희 씨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지내다 갑작스러운 포도막염으로 중도 실명하여 절망감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으나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의 기초재활훈련에 참여하여 재활에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자신과 같은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50세라는 나이에 나사렛대학교 기독교학과에 입학, 4.5만점중 4.42점으로 과 수석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김경희 씨는 2016년에 이어 연속 2회 효명장학생 자립재활분야로 선정되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특히 2017년 상반기 장학금은 김건철 장로(실로암의료선교복지연합회 총재), 김병규 회장((주)AMO그룹), 한국수출입은행 등 여러 기업과 단체에서 후원해주셨을 뿐 아니라, 개인 후원자분들이 앞서 후원에 동참해주셨는데요. 미국 애틀란타 예수소망교회의 김경열 장로님과 김향숙 권사님, 콜럼버스 반석장로교회의 박성만 목사님,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이사장 김선태 목사님과 김정자 사모님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함께해주시는 분들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시각장애대학생들이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효명장학금사업에 많은 관심과 나눔을 부탁드립니다.





#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세상

- 시각장애부모 가정 지원프로그램 시행



아이가 경험하는 최초의 배움은 부모님과 함께 읽는 동화책일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일은 부모의 큰 과업 중 하나이다. 하지만 시각장애부모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모의 역할을 하는 데에 한계를 경험한다. 이에 시각장애부모를 지원하는 일은 불가피하며 나아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시각장애 부모를 돕기 위한 실로암의 새로운 프로그램, '해피맘엔키즈'를 알아본다.

시각장애인부모가정의 자녀양육 역량강화를 위한 가족지원프로그램 '해피맘엔키즈'는 '가정방문 독서활동도우미', '오감만족책놀이', '부모독서교육', '가족공동체 체험'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시각장애인부모가정에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부모들이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부모로서의 과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시각장애부모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보완하여 지원합니다.

'해피맘엔키즈'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하는 본 사업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2001년부터 꾸준히 진행해 온 대표적인 시각장애인 가족지원사업입니다. 이번 '해피맘엔키즈'사업은 **한솔교육 희망재단**과 지난 2월 1일 MOU를 체결하여 지원을 받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한솔교육희망재단과 실로암복지관은 시각장애인 가족지원사업의 필요성을 공동으로 인식하여 본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PROGRAM



### 점자동화책 제작 및 보급

시각장애인 부모들도 동화책을 읽어줄 수 있도록 점자동화책을 제작하고 보급합니다. 점자동화책은 이전부터 제작하고 보급해왔지만, 수요에 비하면 부족하여 지속적인 제작이 필요합니다.



### 가정방문 독서활동도우미

독서활동도우미를 선발하여 각 가정에 파견합니다. 시각장애부모 가정에서 방문하여 자녀들을 대상으로 독서활동을 도와주고 독서 지도를 수행합니다.



### 오감만족책놀이

놀이와 읽기를 접목하여 5~7세 아동들의 오감발달 및 정서적 안정을 지원합니다.



### 부모독서교육

부모에게 독서교육을 실시하여 독서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 및 쓰기과정을 통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의 독서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가족 공동체 체험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자녀와의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해피맘엔키즈'는 시각장애부모가정에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자녀에게는 언어 및 인지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에게는 독서지도 방법을 지원하여 양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양육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 부모는 행복하고 자녀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해피맘엔키즈' 프로그램이 되길 기대합니다.

한솔교육희망재단은 보육전문재단으로, 2006년 6월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출범된 이후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복지사업과 보육사업으로 '아이가 희망인 세상'을 열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천진난만 싱어송라이터를 만나다

2017 실로암복지관 사람들의 희망 인터뷰

## 작년 음악재활아카데미에서 하모니카 교육을 수강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하게 되셨나요?

대학에서 기타를 전공했어요. 하모니카는 처음 해보는 거고요. 그전부터 하모니카 잘하는 분들이 하모니카 연주를 들으면 참 멋지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다가 실로암에서 하모니카 교육이 있다고 들었고, 흥미 있는 악기였고 음악적으로도 접목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되었어요. 하모니카를 배우는 것도 좋지만, 강사님이 참 좋으셔서 재밌게 했어요. 또 같이 배우시던 형님은 아버지뻘이시지만, 편하게 해주셔서 친하게 지냈어요. 음악을 같이 할 때, 생기는 유대감이 참 좋았어요. 시각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 하모니카 교육을 수강하면서, 변화된 점이 있으신가요?

흐음. 일단 하모니카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웃음). 무엇보다 좋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다는게 가장 좋았어요. 실로암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다른 시각장애인분들이나 실로암 직원분들하고도 알아가고 친해지고, 하모니카 교실 강사님과 교육생분하고는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됐어요.

## 참 밝아보이시는데, 원래 성격이 밝으셨나요?

어렸을때는 전맹이 아니었어요. 시각장애가 있긴 했지만, 조금씩은 보였거든요. 9살 때까지. 7살 때, 눈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한 쪽 눈이 실명됐어요. 그때는 그게 심각한 건지도 몰랐어요. 제가 녹내장인데, 녹내장은 안압이 높아지는 거여서, 작은 충격에도 타격을 많이 받아요. 9살 때, 눈을 살짝 건드렸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놀랐죠. 그렇게 한순간에 전맹이 되었어요. 그래도 밝을 수 있었던 건, 같이 놀던 친구들 덕분일 거예요. 시골에서 살아서 차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어서 보통 애들하고 똑같이 놀았거든요. 처음에는 철없는 나이니까, 애들이 놀렸어요. 그런데 같이 놀다보니까 저도 비장애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그렇게 친구들은 장애를 떠나 저라는 사람 자체를 받아줬고, 그래서 밝은 성격을 가질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신재혁 님  
시각장애 1급 (선천적, 녹내장), 백석예술대학교 실용음악전공



## 음악을 시작한 계기가 있나요?

처음에는 집에 있는 피아노를 치다가 음악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어요. 형이 피아노 학원에서 배운 걸 치면, 듣기만 하고 따라 치니까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의 추천으로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기타 학원에 가면 다 비장애인이니까, 배우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타를 곧 잘 따라 치니까 사람들이 '어? 잘 치네?' 이러면서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제가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도 장애랑 비장애랑 구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비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싫다기 보다는 어떻게 다가야 하는지 몰라서 조심스러워하세요. 그래서 항상 제가 먼저 다가가고 해야 했는데, 기타를 잘 치니까 먼저 호감을 가져주시고 다가와 주시는 거죠. 그때부터 음악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 얼마 전까지 안마사로 일하셨잖아요, 음악 전공으로 졸업까지 하셨는데, 안마사로는 어떻게 일하게 되신 거예요?

안마사를 하게 된 이유는 생활비 때문이었어요. 당장 음악으로 수입이 없으니까요. 아직은 연습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마침 가까운 곳에 자리가 나서 갔는데, 제가 안마를 잘 못하더라고요. 안마사로 일하는 거니까, 나름대로 배우면서 노력해봤는데, 그게 잘 안됐어요. 그래서 내 길은 따로 있나보다 하고 그만두기로 했어요. 사실 이번에 음악이 나와요. 일단 녹음은 끝내놓고 어떻게 유통시킬지 회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학교 교수님이 음악 하는 친구들을 지원해주시거든요. 그만두면 생활비가 없어서 고민했는데, 교수님이 그만두고 음악에 전념하는 게 좋다고 조언해주셔서 그렇게 결정한 것도 있어요.

##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나 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당연히 싱어송라이터로 인정받고 유명해지고 싶어요. 하지만 욕심내기 보다는 천천히 가고 싶어요. 저도 성장하면서 천천히요.

##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분들 혹은 소식을 구독하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지켜봐주십시오(웃음). 아무래도 시각장애인분들에게 필요한 건 밝은 에너지인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들하고만 지내도 상관없으면 할 말 없는데, 언젠가는 울타리를 벗어나야 하거든요. 누군가 먼저 다가와주기를 기다려주기보다는 먼저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 달란트를 나누는 일

## 실로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숨은 조력자

백조가 호수를 우아하게 활보하기 위해서는 물 밑에서 끊임없는 발짓이 필요하다. 좋은 일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수많은 자원과 도움이 필요하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그들은 백조의 발짓처럼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바쁘다. 실로암 국제사업을 가능케 했던 숨은 조력자 대구대 김태호 교수님을 만나본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2015년 국제지원사업을 진행하여, 몽골국립의과대학의 재활치료실 리모델링 및 물리치료장비 50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몽골 재활치료의 기반을 다질수 있었습니다.



대구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김태호 교수

### 복지관과의 만남

2015년 4월, 복지관의 조봉래부장님과 정성민팀장님을 만났고 그렇게 실로암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실로암복지관에서는 국제사업을 막 시작하기 시작하여 기반을 다지는 때였고, 여러 국가 중 몽골에서 재활치료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탁받은 일은 몽골 물리치료를 대상으로 물리치료교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 어떤 마음으로 수락하셨나요?

제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건 참 복 받은 일입니다. 대학교수로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했고 물리치료를 전공한 제게 물리치료 교육은 그야말로 제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허락했죠.

4월 말 사전 방문을 통해 몽골의 재활의료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열악했고 이제 막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였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오니 몽골의 물리치료분야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하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사실 한국의 물리치료가 현재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캐나다와 미국 선교사들에 의한 교육을 통해서였죠. 저의 대학 은사님은 캐나다선교사였고 한국의 물리치료를 뿌리내릴 수 있게 해주셨는데, 저도 딱 그런 마음으로 몽골을 가게 되었습니다.

### 몽골에서는 어떠셨나요?

대학교수로써 많은 곳에서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보았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공교육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 언어 전달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제자 중 몽골출신 학생인 바트마가 있어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몽골국립의과대학 물리치료실을 셋업하고, 치료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기틀을 제공해주고자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제자도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온 몽골을 2016년에 또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타이이트한 일정 때문에 망설임도 있었지만,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소명이라 생각하며 다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몽골 현지인들은 강의내용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기록하면서, 열정적으로 교육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의 열정을 보며 나 또한, 더욱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5일간의 교육으로 몽골치료사들이 하루아침에 전문가가 될 것이라 생각하진 않지만, 저의 달란트가 몽골의 재활분야를 이끄는 이들에게 밑거름이 되어, 앞으로 몽골 재활치료분야의 발전을 가져오길 기대합니다.

# 복지관

감동과 어울림이 깃든  
실로암 해피스토리



### 관현맹인전통예술단 공연 개최

관현맹인전통예술단에서는 한양대학교 병원, 영등포자원봉사센터, 태안농어촌음악회,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등 여러 장소에서 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국제장애인지원센터 사업 진행

개발도상국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필리핀 안마사 출장교육, 라오스&우즈베키스탄 초청연수, 캄보디아 MOU체결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 장애체험교육 및 인식개선캠페인 진행

- 관악구 · 서대문 · 동대문 · 영등포구 · 군포시 자원봉사센터  
- 부평 기적의 도서관



### 주간보호시설 운영 (건강검진/생신잔치/맛집탐방/요리교실 등 진행)



상반기 자립생활기술훈련 방학특강\_1.9~2.14



개별동료상담 진행\_상시



수요법률상담\_상시 / 금융상담\_2.15



1차 문화공연관람(JUMP)\_2.3



자조모임 실시 (실버자조모임\_2.8 / 여성자조모임 미인카페\_2.28)



효명리더스클럽 모임\_2.2,23

감동과 어울림이 깃든  
실로암 해피스토리

# 학습지원센터



장애인점역교정사 양성훈련 개강\_1.9



이웃과 함께하는 신년찬양축제\_1.21



상반기 기초재활훈련 개강식\_2.20



2017년 보조공학기기 대여식\_2.25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7년 보조공학기기 대여사업'을 통해 4종의 보조공학기기를 총19명에게 대여해주었습니다.



American Thermoform & CSUN Conference 참가\_2.27~3.3

## 시각장애인 대체자료 위한 3D프린터



촉각교재제작팀에서는 시각장애인 대체자료 개발을 위해 3D프린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3D프린터는 말 그대로 3차원의 형태로 프린트가 가능한 프린터인데요. 촉각교재제작팀에서는 3D프린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자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각장애학생들의 과학 학습을 돕기 위한 시각자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동물의 한 살이'에 나오는 매미, 나비 등의 곤충 및 동물의 이미지를 3D촉각교구로 출력하여 제작하고 보급합니다. 이는 초등저학년 뿐 아니라 시각장애학생들이 실물로 본 적 없는 것들을 만져서 연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시각장애들에게 가장 중요한 독립보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3D보행안내촉지도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촉지도를 이용하여 시각장애인들은 지리를 익힐 수 있고 혼자서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3D프린터는 입체적인 표현이 가능하고 일일이 만들어야하는 수고와 시간을 절약해주는데요. 하지만 유지비와 수리비가 많이 들고 전문기술이 많이 필요한 장비입니다. 현재 3D프린터를 이용해서 종로지역, 맹학교 주변 등 몇 군데의 촉지도가 제작되었지만, 아직도 시각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촉지도가 필요합니다. 촉각교구 또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촉각으로 경험하는 세상, 3D프린터는 시각장애인이 배우고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대안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기술이 대중화되기 위해서 많은 인력과 자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나눔을 부탁드립니다.

3D프린터 관련 문익는 촉각교재제작팀(02-880-0620~4)으로, 3D프린터 관련 후원은 흥보팀(02-880-0865~9)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동방학특강\_1.10~2.2



독서캠프 특특 책라디오\_2.3~4



자녀와 함께 점자동화책 만들기 교실\_2.7~9



시각장애성인 겨울방학특강\_1.17~2.10



학부모설명회 개최\_2.9



지역사회점자교실

# 실로암 직업재활 시설

감동과 어울림이 깃든  
실로암 해피스토리



1분기 운영위원회 실시\_1.16

근로사업장 1분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설장, 전문가, 근로장애인 대표, 관계 공무원, 지역주민 대표가 참여하여 근로사업장 운영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감동과 어울림이 깃든  
실로암 해피스토리



한솔희망재단MOU 체결\_2.1

복지관은 한솔교육희망재단과 MOU를 체결하여 시각장애부모 가정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은 시각장애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역량강화프로그램 'Happy Mom&Kids'입니다.



안마센터 운영\_상시



카페모아 운영\_상시



# 설리번 학습지원 센터



역사체험교실\_2.23



이동도서관 운영  
(서울시 은평, 노원, 성북, 강북 7가정)



LED 사업장 운영\_상시



포장조립 운영\_상시

